‘1000원 맛집’ 전통시장이 참 좋다

고물가 시대 대인시장 국수·백반집 등 인기

외지 관광객 명소에 문화·예술공간 역할도

1000원 국수에 1000원 짜리 백반, 순대 등을 무한리필 서비스하는 국밥집까지….

점심값 1000원도 아쉬운 고물가 시대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독특한 맛과 남도의 정을 듬뿍 얹어 주는 저가 맛집들이 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이들 식당은 온라인 상에서도 유명세를 타며 광주·전남은 물론 외지 관광객들도 찾는 명소로 전통시장을 살리고 문화·예술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이들 업소 대부분은 안전행정부가 2011년부터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하며 어려운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선정한 ‘착한가격업소’들이다.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한 번쯤 꼭 들러봐야 될 정도로 명소가 된 ‘장터국수’집. 이곳은 싼 가격 덕분에 시장 상인들은 물론 인근 문화·예술인과 직장인까지 찾는 소문난 전통시장 맛집이다. 1000원짜리 잔치국수와 함께 찐 계란 3개에 1000원, 비빔국수와 파전은 각각 2000원. 오뎅 2개에 1000원 등 10년 전 가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테이블 3개 정도의 작은 식당이지만 맛도 일품이어서 입소문을 타고 외지인들까지 물어 물어, 찾아오고 있다.

장터 국수집에서 한 블럭 건너면 최근 재개업해 ‘1000원 백반’의 맥을 이어온 ‘해뜨는 식당’을 만날 수 있다.

지난 2010년 문을 연 이 식당은 형편이 어려워 끼니를 잇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백반을 1000원에 팔아왔으나 운영비 부족과 업주 김 할머니가 대장암 판정을 받으며 영업 중단 위기에 처했다가 광주신세계 등 지역 기업과 단체의 지원으로 리모델링 후 영업을 재개했다.

가격과 맛을 떠나 이웃 사랑의 훈훈한 감동이 녹아 더욱 맛있는 집으로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인근에서 노동일을 하며 알게돼 이 곳을 자주 찾는다는 정모(62)씨는 “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우리로선 이 곳이 안식처 같은 곳”이라며 “1000원의 가치와 인정을 느끼게 하는 소중한 식당”이라고 말했다. 대인시장에는 또 순대 등을 무한리필해 주며 남도의 걸쭉한 정을 전하는 국밥집 ‘나주식당’도 있다.

담백한 맛의 국밥이 인기지만 푸짐한 양의 내장수육은 이 집의 자랑거리다. 막걸리와 함께 정다운 이웃과 담소를 나누는 ‘사랑방’ 같은 분위기로 항상 손님이 북적인다. 온라인에 맛집으로도 소개돼 광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꼭 들르는 식당이다.

직장 동료들과 이 곳을 자주 찾는다는 박모(44)씨는 “경기불황에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데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식당의 장점”이라며 “다들 어렵지만 많이들 찾아와서 더욱 번창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한편 12월 현재 서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는 착한가격업소가 광주와 전남에 각각 342개, 전남 357개 선정돼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7일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내 1000원 짜리 백반으로 유명한 ‘해뜨는 식당’에서 손님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1000원 국수로 사랑받고 있는 ‘장터국수’집.

전남농협지역본부가 지난 16일 화순도곡농협에서 ‘2013 딸기 연합사업’을 통해 첫 출하된 딸기를 선보이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전남농협, 딸기 연합사업 첫 출하

전남농협지역본부(본부장 박종수)는 16일 곡성농협, 도곡농협, 창평농협이 참여하는‘2013 딸기 연합사업 첫 출하를 실시했다.

도곡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선별 및 포장된 딸기는 농협중앙회 청과사업단을 통해 전국의 하나로마트로 출하된다. 전남농협은 하나로마트 이외에도 홈플러스등 대형마트에 신규 입점할 계획이며 사업이 마무리 되는 내년 5월까지 400톤을 취급해 연간 25억원을 달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설향” 품종 외에도 신품종인 “죽향”과 “매향”등 다양한 품종을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한편, 전남농협은 작년 딸기 연합사업 출하량 317톤으로 20억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농수산식품 사이버거래 증가

11월말 기준 395억원

전년동기비 63% 늘어

광주·전남지역 농수산식품 사이버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광주전남지사에 따르면 aT 사이버거래소의 광주·전남 지역 농수산식품 사이버거래액이 지난 11월 말 기준 395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3% 늘었다. 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는 과다한 유통비용을 줄여 소비자는 싼값에 구매하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게 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9년 설립됐다.

이곳에서는 농수산물 기업 간 거래(B2B),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친환경·지역특산명품쇼핑몰(B2C) 운영 등 3개 부문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광주시교육청 관내 학교급식 공급업체 73곳이 35개 학교에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이용해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전남도교육청도 이 시스템을 내년 2월 도입을 위해 준비중이다.

또한 B2C·B2B 업체가 사이버거래소에서 소비자 또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활발히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거래를 하고 있다.

성창현 aT 광주전남지사장은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 지역 농수산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못 믿을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과다 수취 대출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했다 적발

4대 시중은행이 과다수취한 대출이자 환급액을 허위보고했다가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고 갑자기 이를 수정했다. 고객 대출이자를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것도 모자라 부당하게 받은 이자마저 제멋대로 지급했다고 인정한 셈이어서 시중은행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줄 전망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은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환급액 허위 보고와 관련해 최근 금융감독원의 현장 검사가 들어오자 환급액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검사가 들어오자 은행들이 환급액을 크게 늘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은행은 지난 6월 예적금 담보 부당수취 이자 144억원을 환급한다고 금감원에 보고했으나 실제 환급액은 68억원에 불과했다.

당시 금감원에 보고한 환급액은 국민은행 55억원, 신한은행 40억원, 우리은행 25억원, 하나은행 24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국민은행 10억원, 신한은행 26억원, 우리은행 14억원, 하나은행 18억원으로 보고액과 76억원이나 차이가 났다.

시중은행들은 허위 보고에 격분한 금감원이 최근 현장 검사에 나서자 환급액 산정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기존 76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100억여원을 고객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나섰다. 금융당국이 부당이자 환급액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지 않았다면 시중은행은 고객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돈을 은행 금고 속에 계속 넣어뒀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앞서 금감원은 대출 시행 후 고객에게 예·적금 담보를 받았는데도 대출이자를 깎아주지 않은 은행들에 과도하게 받은 이자를 환급하라고 지난 2월 지도했다. /연합뉴스

농어촌공사 신입사원 84명 공채

19일~내년 1월2일 접수

한국농어촌공사는 오는 19일부터 2014년도 신입사원 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개 채용에서는 학력, 연령 제한 없이 신입사원을 선발할 예정이며 채용분야는 행정, 토목, 지질, 기전, 전산, 환경 등이다.

채용 인원 84명 중 40명은 농어업인 자녀로 별도 채용할 계획이며 공사 이전에 맞춰 지역 채용목표제도를 시행, 본사 이전 지역인 광주·전남 출신이 10% 미만일 경우 10%까지 우선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서류심사, 필기 및 인적성검사, 면접 등의 절차를 거치며 공사가 최근 해외사업을 확대할 방침에 따라 영어면접을 실시한다.

이강환 인사복지처장은 “우리 농어촌에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으면서도 세계를 누빌 잠재력을 지닌 맞춤형 인재를 채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서접수는 19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인터넷으로만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또는 전화(031-420-3982~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냉장고·차 등 에너지효율 거짓 표시 과태료 4배

내년 2월 6일부터

내년 2월6일부터 냉장고나 세탁기,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거짓으로 표시하다가 적발되면 지금보다 4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연비가 규제 기준치보다 낮은 승용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체들이 에너지효율 관리 제품에 대한 등급을 과장하거나 표시하지 않았을 때 내야 하는 과태료가 늘어난다.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1회는 종전 2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2회는 3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3회는 4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4회 이상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규정은 냉방기, 조명기기 등 35개 가전품목과 자동차, 타이어 등 총 37개 품목에 적용된다. /연합뉴스